

【 해외금융 뉴스: 일본 】

일본은행, 금년도 경제성장률 전망 1%p 하향 조정

- 일본은행은 2011회계연도(2011년 4월~2012년 3월)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의 1.6%에서 0.6%로 1%p 하향 조정
 - 일본은행은 4월 28일 발표한 ‘경제·물가정세 전망 보고서’에서 “동일본대지진의 영향으로 생산측면을 중심으로 당분간 경기하향 압력이 강할 것”이라며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배경을 설명
 - 일본은행은 매년 4월과 10월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해당 연도와 향후 수 년간의 경기 및 물가 전망을 발표하며, 이를 7월과 1월에 중간 평가함.
 - 0.6%의 경제성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가 최근 발표한 일본의 성장률 전망치(0.8%)보다는 낮고 일본 내 민간연구단체의 예상 평균치(0.4%)보다는 높은 것임.

- 그러나, 2012년도 전망에 대해서는 기존의 2.0%에서 2.9%로 상향 조정하였고, 소비자물가지수(CPI) 상승률도 종전의 0.6%에서 0.7%로 상향 조정함.
 - 일본은행은 현재 진행 중인 전력공급 제한이 완화되고 공급망 차질 사태도 점차 호전되면 올 하반기부터 수출이나 생산이 증가세로 돌아서 경기회복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함.
 - 또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초 전망치 0.3%보다 0.4%p 높은 0.7%로 전망하고, 내년도 CPI는 당초 전망치보다 0.1%p 높은 0.7% 상승할 것으로 예상함.

- 한편, 일본은행은 같은 날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현행 연 0~0.1%인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동결하고 대지진 피해에 대한 저리대출의 기본방안을 결정함.
 - 지진피해 지역에 영업점이 있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회사당 1,500억엔을 한도로 금년 10월말까지 1조엔 규모의 대출을 1년만기 0.1%로 제공하는 것임.

(마이니치신문 4/29, 니혼게이자이 4/28, 산케이신문 4/29 등 뉴스 종합)